

# 道, 에너지신산업 정책 전국에 알린다

##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서 '사이언스파크' 홍보 1천개 기업유치·일자리 2만개 창출 등 비전 선포

전남도는 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 정책을 전국에 알렸다.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혁신을 통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마련'이라는 주제로 8일까지 계속된다. 전남도는 박람회에서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의 허브, 전남'을 주제로 정책 홍보 전시관을 운영한다. 에너지신산업을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의 허브, 전남'이라는 비전과 '에너지기업 1천 개 유치 및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목표로, '에너지사이언스 파크'와 에너지 관련 기업 사례를 주요 콘텐츠로 구성했다. '에너지 사이언스파크'는 한전공대 설립과 산학연 집적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인력 양성과 에너지 연구개발(R&D) 기관을 집적하기 위해 추진된다. 창업벤처타운과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기업 1천 개를 유치하

고, 강소형 R&D 특구 지정은 바탕으로 330만㎡(100만 평) 규모의 에너지 융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2025년 39조 원 규모로 성장할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에너지저장장치 ESS 산업을 선도할 ESS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SS 클러스터는 ESS를 생산해 검증하는 ESS 인증센터와 대용량 실증기술을 확보할 실증사업센터,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용센터가 사업모델이다. 에너지 관련 기업의 성공 사례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신개념 추적형 영농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해 농업과 태양광 전력생산을 함께 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모델이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개막식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중심의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등 전남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을 전국에 알리겠다"며 "앞으로 에너지신산업 하면 전남을 바로 떠올리게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는 17개 시도별 전시·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혁신활동가 대회, 국제 컨퍼런스, 관람객 체험, 토크 콘서트, 로컬밴드 공연 등이 펼쳐진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문인 북구청장이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27개동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실시한다. /북구청 제공

## 북구, 주민 간담회로 생활자치 활성화 나서

### 10월 5일까지 27개 동 방문...불편 사항 등 개선방안 논의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현장마다 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관내 27개 동을 방문해 구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6일 북구에 따르면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민선 7기 구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6일 중흥3동·우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27개 동 순회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공식 동 순회방문인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약이나 업무보고 등 형식적인 틀을 탈피해 주민 커뮤니티공간, 작은 도서관, 카페 등 편안한 장소에서,

각 동 주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단체의 동 행정 참여 확대 및 생활자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북구의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북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남대와 광주주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경제 종합지원센터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선 7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김정관 기자 kissout@

## 전남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순천·보성·신안 1천160km<sup>2</sup>

전남도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순천, 보성, 신안 갯벌 81.92km<sup>2</sup>에 대해 지난 3월 보호지역 확대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1천160.71km<sup>2</sup>로 대폭 확대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갯벌 1km<sup>2</sup>가 제공하는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39억으로 추정돼 습지보호지역 전체의 경제적 가치는 4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부터 연안과 해양 생태다양성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 지정은 보성, 신안, 2곳의 갯벌은 법적보호종인 황조롱이와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서식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한국의 갯벌'로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 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으로 갯벌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정율성 선생 생가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는 9일 중국 취안저우시에서 열리는 정율성음역제 참석을 앞두고 6일 오후 정율성 선생의 동구와 남구 생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미래먹거리 확보 팔 걷었다

### 산업분야 국비 확보·추진 사업·기관별 육성전략 공유

광주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광주시를 비롯해 지역 기업, 산업 유관기관, 대학,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정책 대응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산업 혁신성장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의 산업정책과 미래먹거리 발굴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인아 등 9개 지역기업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ETRI

호남권연구센터 등 16개 산업 유관기관,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7개 대학, 한국전력공사 등 4개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참여했다. 회의는 광주시 산업분야 국비 확보현황과 추진 사업 등을 보고받고, 기관별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건립, 안과광학기기기 융합생태계 구축, 지능정보 네트워크용 광통신부품 상용화 실증, 레독스하프전자 인증센터 구축, 광주에너지벨리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발굴하고 2019년 산업분야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산업을 소개했다. 이어 △광산업 △의료산업 △공기산업 △자동차산업 △가전산업 △부동산업 △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등 8개 분야의 '광주시 전략산업 육성계획안'을 발표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기업, 대학, 유관기관, 혁신도시 이전기업 등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 대학, 유관기관, 혁신도시 이전기업 등이 제시한 전략산업 아이디어를 토대로 매월 1회 각 기관의 기획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실제 사업을 기획,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승현 기자 jsh9668@

## 남구 '안심 위생 따라잡기 컨설팅' 선보인다

### 14일까지 참여 음식점 모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점의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자생적으로 먹거리 골목이 생성된 백운동 일대 까치마을 먹자골목 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평가 지정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안심 위생 따라잡기 컨설팅을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항목과 지정기준에 따른 객석 및 객실, 조리장, 화장실, 종사자 개인위생 등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 역시 한번에 그치지 않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및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개선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컨설팅 참여 음식점 모집은 오는 14일까지이며,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limm82@korea.kr)이나 팩스(062-607-4405), 우편 발송 또는 남구청 5층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신청 자격 및 참여조건 확인 후 오는 11월까지 위생관리 미흡 사항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위생등급제 전문교육 실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컨설팅 실시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등급제 신청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제6회 무안 황토갯벌축제**

**2018. 9. 7(금) ~ 9. 9(일)**

장소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

**주요행사**

- 풍요갯벌 퍼레이드
- 황토갯벌 운저리 낚시 체험
- 낚지·장어 잡기, 농게 잡기
- MBC 축하공연(유명가수 출연)
- 내가 잡은 물고기 즉석요리체험
- 갯벌 머드탕, 황토탕, 황토놀이터 등

**무안군**